

退溪 李 滉의 家系와 生涯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助教授 李 秉 休

一. 序 言	1. 그의 性品과 生活態度
二. 李 滉의 家系	2. 그의 官歷과 官職觀
三. 李 滉의 生涯	3. 그의 現實參與
	四. 結 語

一. 序 言

退溪 李 滉은 朝鮮朝의 燕山君 7年 (1501)에서 宣祖 3年 (1570)까지¹⁾ 生存한 性理學者로서, 後輩 學者인 栗谷 李 珥와 더불어 흔히 조선조 性理學界의 두 巨擘으로 崇拜되는 人物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학문이나 思想에 대해서는 學者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이미 많은 業績을 남겨놓고 있고, 또 그의 생애에 관하여도 거의 상식에 속한다 하리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이 研究가 새삼스럽게 試圖되는 것은 深奧한 그의 性理學의 哲理를 재검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看取되는 性品 生活態度라든가, 官職觀·現實參與 따위에 관하여 보다 정확하게 究明해 보자는 극히 素朴한 目的에서이다.

이러한 문제는 主題의 성격으로 보아서 傳記의 範疇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傳記가 대체로 주인공의 生涯를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관찰, 서술하는 弊단이 있고, 또 그를 역사 속에서 認識하지 않고 그와는 별 관련이 없는 존재처럼 파악함으로써 그의 言行 따위 일체를 美化하는 弊단이 많은 것처럼, 李 滉의 생애에 관한 종래의 연구도 그러한 過誤를 범한 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기에 本稿에서는 李 滉을 그가 살고 있던 당시의 역사 속에서 파악하고, 또 그를 그의 시대와 연결시킴으로써 그의 참 모습에 보다 가까운 그를 浮刻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二. 李 滉의 家系

退溪先生世系圖에 의하면, 그의 先祖는 麗末의 鄉吏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그의

1) 李 滉의 卒年에 대하여는 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退溪先生年譜의 記錄에 각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實錄이 宣祖 2年 12月 辛丑으로, 修正實錄이 宣祖 3年 12月 甲午로, 年譜가 宣祖 3年 12月 辛丑으로 잡은 것이 그것이다. 本稿에서는 年譜의 記錄에 따랐다.

6代祖인 李 碩은 眞寶泉吏로서 司馬試에 합격은 하였으나 官歷上에는 별 다른 변동이 없
이, 後日 아들 李子脩로 인하여 奉翊大夫 密直使를 追贈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密直使는
密直司의 錯誤인 것이고, 奉翊大夫는 從2品이므로 그는 아마 判司事·司事·知司事·叅書
司事·同知司事중 어느 관직을 追贈받았을 것이다. 5代祖인 李子脩는 明書業 출신으로
通憲大夫 判典儀寺事에 이르렀는데, 恭愍王 10年(1361) 그는 鄭世雲의 裨將으로 紅巾賊
토벌에 종군하여 首都를 回復한 공로로 安社功臣(二等)의 號를 下賜받고 松安君에 봉해
졌다. 다음 4代祖인 李云侯는 관직이 中訓大夫 軍資寺副正에 이른 이로서, 後日 曾孫 李
堉로 인하여 通訓大夫 司僕寺正을 追贈받았다. 3代祖인 李禎은 蔭補로 知印이 된 데서 출발
하여 관직이 中直大夫 善山府使에 이른 이로서, 後日 孫子인 李堉와 증손인 李滉으로 인하여
通政大夫 兵曹參議와 嘉善大夫 戶曹參判 겸 同知義禁府事를 각각 追贈받았다. 祖父인 李
繼陽은 進士試 출신으로 現職의 經歷은 없었고, 後日 아들 李堉 및 孫子 李滉으로 인
해 嘉善大夫 兵曹參判과 資憲大夫 吏曹判書 겸 知義禁府事를 각각 追贈받았다. 父 李堉
역시 進士試 출신으로 現職의 經歷은 없이, 아들 李堉와 李滉 덕분에 嘉善大夫 兵曹參
判과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겸 判義禁府事를 각각 追贈 받았다.²⁾

이로써 보면 李 滉의 家系는 麗末의 鄉吏에서 출발하여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兩班으로
서의 門地를 굳힌 것을 알 수 있다. 朝鮮王朝의 兩班層속에는 그 家系의 淵源이 高麗 中
期이후의 鄉吏身分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고려시대의 官人層은 文·武와 吏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 吏는 文班·武班처럼 독립적인 班行을 갖지 못하고 文
班속에 흡수됨으로써 兩班体制속에 解消된 신분으로 行政의 末端實務에 從事하였다. 그
러나 門蔭出身과 吏族出身의 두 系列로 구성되는 이들 吏는 高位官吏가 될 수 있는 潛在
의 可能性을 지닌 신분이었던 까닭에 武臣執政時에는 文班과 同一視되었으며, 이를 轉機
로 文班과 吏族의 융합이 진행되어 주일 「能文能吏」의 新官人層을 형성하게 되었다. 吏族
가운데서도 특히 지방의 鄉吏層은 대거 中央의 政界에 진출하여 종래의 文班·武班과는
형을 달리하는 「士大夫」란 새로운 權力層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들이야말로 곧 조선왕
조 권력구조의 主軸을 이룬 兩班으로 연결되었던 신분이다.³⁾

李 滉의 先祖는 위에서 보아 온 것처럼 鄉吏層에서부터 士大夫 계급에까지 身分上昇
을 이룩하여 조선왕조의 兩班의 班列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그의 家系가 兩班신분으로
서의 門地를 확고하게 다진 것은, 開國에 참여한 功臣의 家門을 제외한 조선왕조의 餘他
家門이 대개 그러하였듯이, 그 자신을 契機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李 滉은 학문
의 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官職의 經歷으로써도 그의 家門을 飛躍시킨 획기적인 人物

2) 退溪先生年譜 卷首 退溪先生世系之圖(退溪全書 下冊 所取) 및 椽曹龜鑑 卷2, 觀感錄 參照
3) 李佑成, 高麗朝의 「吏」에 대하여 (歷史學報 23輯) 參照

이었다.

前掲의 世系圖에는 李 滉의 先祖 뿐만 아니라, 그의 13代孫까지에 이르는 後孫의 系譜도 収録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아마 王朝時代에 生存한 일이 없는 世代가 적어도 두 世代는 포함되어 있으리라 짐작된다. 여하튼 그것에 의하면, 그들 後孫의 科擧經歷은 生員試 합격자 8人, 進士試 합격자 4人, 文科 及第者 32人 등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들의 現職經歷은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나 있다.

品階	官職	人數	品階	官職	人數	品階	官職	人數
從 1品	判義禁府事	1	正 4品	應 教	3	從 6品	主 簿	1
正 2品	知中樞府事	1	從 4品	僉 正	1		鼎 監	7
從 2品	參 判	7		都 守	5		察 訪	1
	人 司憲	1		副 軍	4		童蒙教官(教授?)	1
	漢 城 右 尹	1	正 5品	校 理	4	從 7品	直 長	1
	同知中樞府事	1	從 5品	判 官	1	從 9品	參 奉	10
	副 摠 管	1		都 事	2		監 役	3
正 3品	參 議	2		別 坐	1	小 計		93
	承 旨	6		縣 令	1		生 員	8
	大 司 成	1	正 6品	佐 郎	1		進 士	4
	僉知中樞府事	15		司 書	1		文科(官職未詳)	1
	都 正	2		正 言	3	總 計		106
	牧 使	2		翊 贊	1			

生員試 및 進士試 합격자는 現職에 仕宦하지 않았고, 文科 及第者 32人中 31人是 現職의 經歷이 있으며 나머지 1人是 未詳이다. 그들 전체의 現職經歷은 위의 文科 及第者 31人을 포함하여 모두 93人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그 가운데 62人是 蔭仕에 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現職 仕宦者의 三分之一이 文科 及第者이고 나머지 三分之二가 蔭仕者이니, 蔭仕者는 文科 及第者의 倍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李 滉을 契機로 하여 그의 家門이 朝鮮朝의 兩班層속에 확고히 뿌리박게 되었다는 것을 立證하는 가장 具體的인 證據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위의 표를 볼 때, 李 滉의 後孫가운데는 먼저 官職의 經歷에 있어서 그의 수준을 넘어선 인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음 그들의 官職經歷의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서 嶺南의 士林派 가운데서는 비교적 우월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하겠으나, 전체 兩班層속에서 볼 때는 그리 대단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은 비단 李 滉의 家系 뿐만 아니라, 嶺南의 兩班 전체의 공통적인 傾向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작용한 것 같다. 첫째, 조선 중기이후 표면화한 黨爭으로 인하여 嶺南의 南人系列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官界進出이 거의 無望하였다고 할 정도로

疎外되어 있었다는 점, 둘째, 嶺南의 南人들은 士林派的 意識이 強烈하여 官界 進出보다는 性理學의 學理 探究에 더 큰 보람과 意義를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이 곧 그것이다. 그런 까닭에 嶺南의 南人系에서 赫赫한 官職을 자랑할만한 高官大爵은 많이 나오지 못하였으나, 李 滉에 의해 열려진 性理學의 門戶는 그런대로 손색없이 보존해 왔던 것이다. 李 滉의 후손가운데 蔭仕자가 많다는 사실도 그러한 角度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들 대개가 당초부터 관직에 뜻을 둔 인물들은 아니었을 것이나, 같은 黨色의 인물들이 執權하고 난 뒤 자기 黨의 勢力基盤을 굳히기 위하여 자기 黨色의 인물을 많이 起用하였을 경우에 관직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李 滉의 家系는 그 자신에 의해 兩班層속에 확고히 定着되었고, 이후도 大性理學者로서 이룩해놓은 그 자신의 탁월한 學問的 業績에 의해 유지, 보존되었을뿐, 학문적인 면에서도 그의 學統을 이을 만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였고, 官職面에서도 그의 수준을 넘어선 인물은 나오지 못하였다. 물론 그 원인이 전혀 그들 후손의 無能에 있었던 것만은 결코 아니고, 朝鮮王朝史가 지니는 內面的인 複雜性에서도 그 원인의 一端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다.

三. 李 滉의 生涯

1. 그의 性品과 生活態度

李 滉의 門人 趙 穆이 撰한 言行總錄에는

先生은 天資가 穎悟하고 神彩가 精明하였다. 性品은 어려서는 端慤하여 戲弄을 즐기지 아니하였고, 자라서는 學問을 좋아하여 道義로써 修養하였던 까닭에 聰明·正直하고 孝悌·忠信하였으며, 精溫·純粹하여 모가 나는 言行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氣質은 溫和하면서도 強毅하고, 言辭는 婉曲하면서도 直線的이었다. 學識은 該博하면서도 要領이 있었고, 행동은 온전하면서 篤實하였다. 淸淨하되 過激하지 않았고, 參與하되 굳이 바로 잡으려 하지는 않았다. 옛 것을 欽慕하되 그에 壅滯되지 아니하였고, 世上에

性 品	典 據	性 品	典 據
氣 質 英 明	明宗實錄 14, 8年 4月 己亥條	性 明 潛 溫 謙	明宗實錄 32, 21年 2月 丁卯條
天 性 疎 淡	〃 14, 8年 6月 辛卯條	天 資 純 粹	〃 33, 21年 6月 甲戌條
為 人 淸 簡	〃 17, 9月 12日 己卯條	天資純美雅意恬靜	宣祖修正實錄 4, 3年 12月 甲午條
為 人 淸 修 高 節	〃 18, 10年 5月 己亥條	道成德立愈執謙虛	〃
天 性 溫 粹	〃 25, 14年 6月 辛丑條	正 大 明 白	〃
性 疎 淡 寡 慾	〃 31, 20年 4月 乙酉條		

처해 살되 世俗에 흐르지 아니하였다.⁴⁾

라 하여 李 滉의 사람됨이 簡潔하고 要領있게 評說되어 있다.

한편 朝鮮 太祖實錄에 散見되는 그의 性品은 摘錄해 보면 앞의 표와 같다.

위의 두 資料에 나타나 있는 그의 性品은 疎淡·清簡·清修·溫粹·純粹·純美·溫謙·謙虛·恬靜·明白한 것이었다. 이러한 性品은 李 滉을 學者로서 大成시키는 데는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탁월한 能力을 지닌 官吏가 될 수 있는 性品으로는 그리 만족스러운 것이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시의 官吏는 때로는 君主의 의견에 追從하여 맡은 바의 직무를 묵묵히 遂行해 나가는 消極性과 沈潛性을 지녀야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君主의 意見에 맞서서 자기의 所信이나 經綸을 과감하게 貫徹시키는 積極적인 進取性과 不屈의 투쟁의식도 지녀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李 滉처럼 현실에 「參與하기는 하여도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는 않는다」 性品은 官吏로서 지녀야 할 것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가 관직을 굳이 마다하고 鄉曲에 묻히고자 한 것이나, 時務에 별 관심이 없어 時弊의 釐正이나 現實의 改革에 별 寄與를 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의 時代가 지니고 있었던 特殊性 때문이었던 기도 하지만, 그의 性品 자체에서 起因한 면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그의 性品은 그의 生活態度 내지 生活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못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또 거꾸로는 그러한 生活態度속에서 그의 天性은 後天的으로 더욱 굳어졌을 것이다. 가령 恬靜한 그의 性品은 여럿이 있을 때 그는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 혹은 책을 보면서 혹은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면 보냈지, 한가한 對話나 雜談을 하는 일은 없었다.⁵⁾ 거나, 혹은 卞索에 있을 때도 衣帶를 단정히하였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을지라도 조금도 게으름을 부리는 적이 없었다.⁶⁾ 는 정도로 항상 조심스럽게 삼가하는 生活態度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謙虛한 그의 性品은 비록 높은 官職에 있었지만 布衣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素朴하고 謙虛한 그의 生活態度를 낳았다.⁷⁾ 그는 道德이 날로 成長해 갈수록 더욱 謙虛한 姿勢를 지니려고 노력하였는데⁸⁾ 그가 殞命하기에 앞서 아들에게 자기가 죽은 뒤 禮曹에서

4) 退溪先生言行通錄 卷1, 退溪先生年譜 卷3 附錄 및 陶山及門諸賢錄 卷首
先生 天資穎悟 神彩精明 性幼端慤 不喜狎弄 長好學問 養以道義 故聰明正直 孝悌忠信 而精純溫粹 不露圭角 氣和而毅 辭婉而直 學博而要 行全而篤 清而不激 介而不矯 慕古而不滯 處世而不流

5) 同上條

其群居 斂任端坐 或觀書 或靜默 以終日 未嘗爲閑話雜說

6) 明宗實錄 卷18, 10年 2月 癸未條

平居 正衣冠 坐雖暗室 未嘗少倦

7) 同 書 卷17, 9年 12月 己卯條

8) 宣祖修正實錄 卷4, 3年 12月 甲午條

관례에 따라 요청한 禮葬을 固辭할 것과 墓所에는 碑碣을 세우지 말고 조그마한 돌에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만 새긴 것을 당부한 것에서⁹⁾ 그것은 더욱 잘 드러난다.

그는 늘 草野에 뜻을 두어, 매양 관직을 그만두고 歸鄉해서는 山林에 집을 짓고 性理學의 研究에 專念하였을 뿐,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現實의 人 榮進을 할 수 있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을 정도로 純粹·素朴하고 篤實한 生活로써 平生을 一貫해 왔다.¹⁰⁾ 그래서 그는 不仕이 있어도 잊어버리려고 힘써 마음에 남겨두지 않았으며, 榮利의 追求나 家産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까닭에 한 석(石)의 양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서도 늘 裕足한듯이 生活을 하였다. 또 衣帶가 없어서 上司가 걸옷 한 벌을 주어도 받지 않았을 정도로 淸貧한 生活을 즐겨 堪耐하였다.¹¹⁾

그는 남의 허물을 쉽게 이야기하는 법도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남에게 함부로 허용하지도 않았는데¹²⁾ 이는 그의 學者的인 性品の 소극적인 一面이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그의 性品에도 強毅한 일면은 있었다. 가령 그가 弱冠 23歲의 나이로 (中宗 18年, 1523) 成均館에 머무를 때는 己卯土禍를 겪고 난 후였는데, 당시는 士習이 날로 浮薄해져 갔는데도 그 만은 禮法으로 스스로를 規律하였던 까닭에 남들이 모두 비웃었으나 그는 超然히 처세하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려 들지 않았다.¹³⁾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하한 勸誘나 挽留도 과감히 뿌리치고 退官, 歸鄉하는 強靱性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오랜 官職生活을 통하여 一貫되어 온 이상과 같은 그의 生活態度 내지 生活觀은 때로는 그를 淸簡之人的 風骨에 오르기도 하였고¹⁴⁾ 때로는 勤謹之人으로 뽐히기도 하였다.¹⁵⁾ 그래서 明宗朝의 經筵 侍讀官이었던 申汝宗은 그의 사람됨이 「文章은 餘事이고 操行이 심히 高尚」하여, 「淡泊하기를 마치 布衣와 같아 立朝한지 오래되었는데도 營居하지 않을 정도였으니만큼 그를 「崇獎하여 불러들일 것 같으면 士習에 크게 激勸이 될 것」이라고 하였

9) 同上條

戒子箴曰 我死 該曹必循例請用禮葬 汝須稱遵令 陳疏固辭 且墓物勿用碑碣 只以小石題其面曰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

10) 明宗實錄 卷 25, 14年 6月 辛丑條

11) 同 書 卷14, 8年 6月 辛卯條 및 同 書 卷18, 10年 2月 癸未條 參照

12) 同 書 卷32, 21年 2月 丁丑條

13) 前揭의 言行總錄

弱冠遊國庠 時經己卯之禍 士習日趨浮薄 見先生所爲 人皆笑侮 先生不以易志 處之超然

宜祖修正實錄 卷 4, 3年 12月 甲午條 參照

14) 明宗實錄 卷12, 6年 11月 戊子條

15) 同 書 卷13, 7年 11月 壬午條

다.¹⁶⁾ 또 領經筵事 尚震은 「몸 가짐이 淸苦하니 이런 인물은 浮薄한 世俗을 激變시킬만 하다」고 하였다.¹⁷⁾ 그러므로 朝廷은 그가 歸鄉해 있을 때도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그의 자리를 비워두는 配慮를 아끼지 않았다.

요컨대 李 滉의 性品이나 生活態度는 人格의 陶冶나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훌륭한 人格者 내지 偉大한 학자로서 그를 成長시키는 데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그것은 그를 信念과 情熱을 가지고 現實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그 現實을 과감히 改革해나갈만한 卓越한 能力의 官吏로는 成長시키지 못하였다. 또 막상 그 자신도 한 사람의 학자이기를 원하였지, 결코 한 사람의 官吏이기를 희망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2. 그의 官歷과 官職觀

中宗 23年(1528) 28歲되던 해 봄 司馬試에 합격한 이후 李 滉은 科擧를 위한 공부에는 달리 뜻을 두지 않았으나,¹⁸⁾ 주변의 권유에 의해 中宗 29年(1534) 3月 34歲의 나이로 式年文科에 應擧하여 乙科 第一名으로 及第함으로써 官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¹⁹⁾ 그리하여 같은 해 4月 承文院 權知副正字에 選補되었다가 곧 藝文館 檢閱 檢 春秋館 記事官에 遷拜되면서 그의 官職經歷은 시작되었다.²⁰⁾ 그후 그는 70歲의 나이로 죽은 宣祖 3年(1570)까지 36年間的 官職生活을 겪게 되었다. 물론 그 사이에 자주 官職을 그만두고 下鄉한 일이 있었고, 더군다나 60歲 이후에 있어서는 실제로 관직에 있었던 기간은 거의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원하였던 않았던 또는 그가 上京해 있었던 下鄉해 있었던간에 그의 관직은 그 사이에도 실세없이 陞秩 또는 通職되었던만큼 그 모든 經歷은 결국 그의 것일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 提示한 것은 그의 대체적인 官職經歷이다.²¹⁾

16) 同 書 卷18, 10年 3月 丙辰條

爲人文章餘事而操行甚高……淡如布衣 立朝已久 又不營居……必崇獎而召還 則士習激厲

17) 同 書 卷20, 11年 5月 壬申條

18) 退溪先生年譜 卷1, 嘉靖 11年 壬辰條

19) 同 上, 嘉靖 13年 3月條 및 國朝榜目 卷6 參照

20) 上揚의 年譜 卷1, 嘉靖 13年 4月條에 의하면, 당시 正言 權頌이 安處謙에게 連坐되자 그의 兄이자 李 滉의 妻父인 權頌 역시 連坐되었다. 그래서 臺諫에서는 逆臣의 女婿가 史官이 결코 될 수 없다 하여 그를 選職시킬 것과 그를 薦擧한 藝文官 官員을 推劾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다. 그래서 그는 곧 承文院 副正字에 遷拜되었다.

그리고 中宗實錄 卷77, 29年 4月 丙辰條에도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諫院啓 檢閱李滉 逆人權頌同生兄頌之女婿 今爲定屬 滉決不可爲史官 請推藝文館官員 并遞李滉

21) 이 資料는 주로 그의 年譜 卷1·2에 依據하되 가능한 한 朝鮮王朝實錄에 散見되는 것과 對比하여 補充하였다.

權知承文副正字-檢閱-承文正字-著作-博士-典籍-戶曹佐郎-弘文副修撰-修撰-正言-持平
 刑曹正郎-弘文校理-持平-弘文修撰-副校理-持平-典籍-刑曹正郎-弘文副校理-檢詳-舍人
 掌令-典籍-掌令-司藝-司諫-司僕寺僉正-司成-禮賓寺副正-弘文校理-左弼善-掌令-直講
 弘文校理-典籍-應教-內膳寺僉正-軍實寺僉正-應教-典翰-相禮-司憲院正-典翰-司僕寺正
 校書校理-禮賓寺正-安東府使-應教-儀賓寺經歷-丹陽郡守-豐基郡守-弘文校理-執義-副應
 教-大司成-上護軍-大司成-副護軍-上護軍-刑曹參議-上護軍-僉知中樞府事-上護軍-僉知
 中樞府事-副提學-僉知中樞府事-大司成-上護軍-工曹參判-同知中樞府事-工曹判書-一中
 樞府事-禮曹判書-大護軍-同知中樞府事-知中樞府事-右贊成-判中樞府事-吏曹判書-判中
 樞府事-右贊成-判中樞府事- (諭 領議政)

위에 든 李 滉의 官職經歷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초기 10여년간의 경력에서는 弘文館과 司憲府의 경력이 主軸을 이루고, 후기의 경력에서는 六曹堂上官의 경력이 散職을 제외한 實職의 主軸을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저한 進出經歷을 가졌던 조선조의 官人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경력의 主傾向이며, 또 그것은 支配層의 관직경력의 進路로는 비교적 典型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²⁾ 그런데 典型的인 官職經歷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官人들이 대개 三司의 관직을 맡고 무경력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던 데 비하여 李 滉의 경우는 弘文館의 경력이 압도적이고 司憲府의 경우가 그 반 정도인데 대하여 司諫院의 경력은 두 차례 정도밖에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性品이나 生活態度에서 드러나듯이, 그에게서는 諫官으로서의 適性은 그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 하다. 반대로 학자의 성품으로는 典型的이었다고 할만한 그의 性品과 頻數한 弘文館의 경력과의 相關關係도 같은 論理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둘째, 中宗 38年(1543)에서 明宗 2年(1547)에 걸친 4년간 그는 司僕寺·禮賓寺·內廬寺·司憲院·儀賓寺 등 여러 官署의 閑職을 집중적으로 경력하였고, 明宗 1年(1546)에서 7年(1552)에 걸친 期間동안의 그의 관직은 그 前時期에 비하여 오히려 降秩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乙巳土禍를 전후하여 尹元衡·李樾 등 威臣勢力이 政權을 左右함으로 말미암아 士林이 스스로 政界에서 멀어져 갔거나 또는 他意에 의해 疎外당하고 있던 당시의 政治現實의 간접적인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22) 拙稿, 鮮初文科及第者の進出에 관한 研究(啓明論叢 第5輯) 參照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의 實兄 李 滉의 被禍에 의해 그 자신에게도 陰性的인 被害가 주어졌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 후에 있어서도 주변에서 그의 才質을 높이 평가하는 事例은 꾸준히 있었으나 그의 官職은 현실적으로 눈에 떨 만큼 陞轉되지 않았음을 注目할 필요가 있겠다.²³⁾

세째, 그의 후기 경력에서는 上護軍·大護軍·副護軍 등 五衛의 遞兒職과 中樞府의 散職을 경력한 頻度가 매우 컸음을 볼 수 있다.²⁴⁾ 원래 五衛의 官職 가운데는 實職보다 遞兒職이 훨씬 많아 그 官職에는 실질상의 武官을 임명하지 않고, 職務는 있으나 祿俸이 없는 者 또는 職務는 없지만 특히 祿俸을 줄 필요가 있는 者를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李 滉의 경우는 後者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를 實職에 起用하여도 늘 辭職, 歸鄉해버리는 까닭에 上擧의 遞兒職을 주어 그의 祿俸을 보장해 주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中樞府의 경력 頻數하였던 것은 그에게 散職을 除授함으로써 그가 하루 속히 조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勸誘하겠다는 配慮에서 나온 措處였다고 보아진다.²⁵⁾

既述한 바와 같이 李 滉은 당초부터 官職에 별 뜻을 두지 않았지만, 주변의 권유가 간절하고 國王의 徵召 또한 잦았으므로 마지못해 進出한 데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했기에 官職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田里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였다.²⁶⁾ 그러한 그의 생각은 乙巳士禍를 겪고 난후 더욱 굳어졌다. 그것은 그의 實兄이 被禍한 데서 오는 충격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그 자신도 여러차례 예측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진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행위는 오히려 國王의 관심을 더욱 喚起시키는 要因이 되었고, 따라서

23) 물론 이와 같은 一連의 사실들은 前述한 그의 성품이나 生活態度에서 緣由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현실이 그로 하여금 늘 官職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宣祖修正實錄 卷2, 2年 6月條에는

是時 上新故 圖治甚切 所登庸新進之士 皆宗主李滉 朋遊講學 自爲一隊 其論以挽回世道 激濁揚清爲尚 時人以小己卯目之 尹元衡·李棟黨類 多坐廢不調 怨憤入骨 而善臣之有名望者 雖自以爲 經歷世變 不失操持 而浮沈取容 富貴安佚已久 見新進之人 輕視前輩 詆爲流俗 皆懷不平 亦自爲 一隊 尹李之黨 因而助爲流言 交煽兩間 欲朝廷撓亂

이라는 記錄이 있어 당시의 世態를 잘 전해 준다.

24) 이러한 例는 그의 후배이지만 거의 同時代人이었다고 할 수 있는 栗谷 李 珥나 西厓 柳成龍 등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特徵이다. 그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李 滉처럼 乞辭歸鄉하여 官職을 떠난 적이 있었다.

25) 明宗實錄 卷32, 21年 3月 丁未條에 의하면, 李 滉으로 하여금 弘文館 및 藝文館의 大提學을 兼任케 하였다는 記錄에 덧붙여 史臣은 자기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滉學問精深 踐履篤實 文章節行 表學一世 安於恬靜 不喜榮進 自中廟朝 屢辭屢起 蒙在禮安 身雖退去 朝廷尙虛其位 以示顧致之意者 十餘年

26) 同 書 卷14, 8年 4月 己亥條

不樂仕宦 每有歸田之志 上屢起之 故勉仕于朝

國王의 徵召하는 頻度도 卽일에 걸 絡 그만큼 더 많아졌던 것이다.²⁷⁾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辭病歸鄉하는 일이 더욱 頻數해지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의 晩年의 경력이 지니는 바와 같은 特徵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그가 晩年에 갈수록 身病을 이유로 辭職하는 일이 잦아졌던 것은 그의 주장처럼 건강상태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원래 그가 관직에 뜻이 없었던 데다가 士禍의 충격과 世道の 衰微, 풍속의 澆亂이 添加되었던 때문일 것이다.²⁸⁾ 그래서 그는 자신 뿐만 아니라, 그를 追從하는 士類에게도 가능한 한 濁亂한 世俗과 陰謀・嫉視로 가득차 있는 政界로부터 떠날 것을 권유하였다. 가령 그가 奇大升과 같은 사람에게 자기네들을 싫어하는 元老大臣과 老少를 離間하는 尹元衡・李 樛의 殘黨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여 그들로부터 떠날 것을 권유한 것은 그 예이다.²⁹⁾

그런데 李 滉은 관직에 대한 자신의 이와 같은 태도를

(관직에) 나아갈 수 있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나아가는 것이 공경스러운 것이 될 것이고, 나아갈 수 없어서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 공경스러운 것이 된다.³⁰⁾

라고 하여, 그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官職觀을 내세워서 변명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恬退를 大臣들은 그를 徵召하는 國王의 誠意 不足으로 돌려, 좀 더 극진한 禮로써 그를 맞을 것을 建白하였다. 가령 史臣이

人君이 어진이를 존경하고 道를 즐기는 정성이 있을 것 같으면, 巖穴에 숨어 사는 선비도 역시 조정에 서기를 원할 터인 즉, 어찌 李 滉처럼 쉴 사이 없이 물러나기를 요구하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는 李 滉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상감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³¹⁾

27) 宣祖修正實錄 卷 4, 3年 12月 甲午條

乙巳之難 幾陷不測 且見權奸濁亂 力求外補以出 既而兄廖 忤權倖免死 自是決意退職 拜官多不就 ……明朝嘉其恬退 累進爵徵召 皆不起

28) 同上條

上亦眷注特異 滉自以年已老 才智不足當大事 又見世衰俗澆 上下無可恃 儒者難以有爲 懇辭寵祿 必退乃已

29) 註23) 參照

30) 顯宗實錄 卷21, 10年 8月 丁丑條에 의하면, 宋 凌吉은 上疏하기를

先正臣李滉之言曰 可進而進者 進爲恭 不可進而不進者 不進爲恭 今臣亦曰 可承命而承命 則承命爲誠信 難承命而不承命 則不承命爲誠信 이라 하였다.

31) 明宗實錄 卷25, 14年 4月 己酉條

人君有尊賢樂道之誠 則巖穴之士 亦將願立於朝 豈有求退不暇如李滉者哉 然則非滉之退也 上之誠不足也

라고 한 것이나, 宣祖初의 承旨 許 晦이

예로부터 帝王은 어진 선비를 얻어 배운 뒤에야 王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李 滉이 늘 병으로 辭職하니 상감께서 恭敬과 禮儀를 다 하시어 師傅로 삼고자 하신다면 옳을 수 있을 것입니다.⁶²

라고 국왕에게 陳啓한 것은 그 단편적인 예이다.

그런가 하면, 李 滉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던 奇大升은 도리어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李 滉을 招致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그를 信用하는 것만으로 족하며, 책임을 너무 무겁게 지우거나 접대를 너무 후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책임을 너무 무겁게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학문이 모자란다고 하여 사양할 것이고, 접대를 너무 후하게 하면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⁶³

그러나, 史臣과 許 晦의 의견처럼 特例로 대우를 했던 奇大升의 의견대로 적절한 대우를 했던 李 滉은 끝내 관직에 復歸할 뜻을 갖지 않았다. 위에서도 言及했듯이 그가 당초부터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주위의 권유에 못이겨 진출하였고, 또 관직생활의 초기에 士禍를 맞아 至親이 被禍하고 자신도 여러 차례 위기에 直面한 일이 있어서 政治에 불안을 느끼게 되어 관직에 대한 생각을 버렸으며, 게다가 士禍이후의 政界의 불안·동요와 世道의 타락 때문에 더욱 더 現實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하였다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그가 지닌 性品이나 생활태도에다가 士禍와 그 후의 世態의 불안이 添加된 데서 결과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의 現實參與

李 滉의 性品이나 生活態度는 그대로 그의 관직생활에 反映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의 現實參與의 정도와 現實에 대한 寄與의 범위를 결정하는 要因이 되기도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의 現實參與는 學究活動을 통하여 性理學의 발전을 도모하고 後進의 教誨를 통하여 먼 장래를 기약하는 보다 遠大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던 당시의 현실에서 보면 다소 消極的, 被動的인 傾向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支配層의 한 사람으로서, 現實의 行政을 遂行해나가는 한 사람의 官吏로서 자기나

32) 宣祖修正實錄 卷 1, 即位年 10月條

自古帝王 得賢士爲學然後 王業可興 李滉累辭病 上若致敬盡禮 欲以爲師 則可至矣

33) 孝宗實錄 卷 20, 9年 1月 甲辰條의 贊善 宋浚吉의 上疏

臣偶見故儒臣奇大升告我宣廟之語 以爲招致李滉 唯信用之而已 責任毋太重 接待毋太厚 責任太重 則必以學問未至爲辭 接待太厚 則非唯不敢安 且有盡歡竭忠之嫌

름의 뚜렷한 政治的 經綸을 지니고 官職生活에 參與한 경우가 드물었으며, 따라서 그의 官職經歷 자체도 散漫한 樣相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배어놓는 데는 자기나름의 뚜렷한 名分과 또 적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참여에는 늘 被動的의이어서 不可避한 狀況下에서만 이에 응하였다. 가령

禮曹判書 李 滉이 관직을 그만두고 歸鄉하였다. 李 滉이 屢次 解職해 줄 것을 말하다가 解職된 다음 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버렸는데 당시는 國主(明宗)의 山陵을 造成하는 役事가 아직 끝나지 않았었으므로 더러는 그가 너무 앞질러 놓이간 것을 그르다고 하였다.³⁴⁾

는 史臣의 설명을 보면, 그는 자못 現實忌避的의이어서 관직에 있으면서도 늘 그 자리를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인정상 자마 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進退를 분명히 하는 의로움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여³⁵⁾ 스스로의 그와 같은 태도를 변명하였다.

뒷 날 宋 凌吉은 孝宗에게

李 滉·李 珣 모두 儒賢이었으나, 主意는 달라서 李 滉은 물러나서 志操를 지키고자 하였고, 李 珣는 나아가서 道를 행하고자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는) 李 滉이 國事를 담당하기를 首肯치 않음을 늘 慨歎하였읍니다.³⁶⁾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李 滉과 李 珣의 현실에 對應하는 태도를³⁷⁾ 이처럼 對比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하였듯이 李 滉 자신은 현실참여나 그것을 통한 현실에의 寄與에 대하여 자기나름의 名分과 基準을 設定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趙光祖를 主軸으로 하는 新進士類들이 너무나 急進的의었고 建議나 制度의 施行이 너무 날카롭게 드러났으며, 强황하고 漸進的의 못되어서, 젊어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時宜에 投合함으로써 紛爭을 불러 일으킨 점이 많았다고 하였다.³⁸⁾ 孔子나 孟子, 程子나 朱子같은 학군이 充

34) 宣祖修正實錄 卷1, 即位年 8月條

禮曹判書李滉 解官歸鄉 滉果辭 解職明日 不辭而歸 時山陵未畢 或以徑歸爲非

35) 同上條

奇大升 以書問之 況答書有云 占之君子 明於進退之分者 一事不放过 小失官守 必奉身而亟去 彼其愛君之情 必有所人 不忍者 然不以此廢其去者 豈不以致身之地 義有所不行 則必退其身然後 可以循其義 當此之時 雖有人不忍之情 不得不屈於義所掩也

36) 孝宗實錄 卷19, 8年 11月 庚戌條

凌吉曰…李滉·李珣 皆是儒賢 而主意不同 況則欲退而守志 珣則欲進而行道 每歎李滉之不肯擔當國事耳

37) 退溪先生文集 卷48, 靜庵趙先生行狀 및 靜庵先生文集 附錄 卷6, 行狀

然而諸公之意 未免失於欲速 凡建白施設 鋒穎太露 張皇無漸 亦有年少喜事之人 投合時好 以鼓作紛私者多

滿한 聖賢들도 周가 쇠망한 이후에는 王道政治를 成就하지 못하고 겨우 「立言垂後」하는 데 그쳤는데, 하물며 趙光祖가 아무 것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는 보았다. 왜냐하면 「立言垂後」하려면 학문이 充滿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일생의 中年 내지 晩年을 기다려야 하는데 趙光祖는 그러한 나이에 이르기전에 謫所에서 죽었던 까닭에 그렇게 될 時間的 餘裕가 없었던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가서 그는 趙光祖가 지니고 있었던 세 가지의 不幸한 條件을 들기를

첫째는 불행하게도 관직이 너무 갑작스럽게 登擢되었고,

둘째는 불행하게도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셋째는 불행하게도 謫居生活이 일생의 마지막이었다.

라고 하였다.⁵⁸⁾ 이러한 條件을 그는 곧 趙光祖 등의 被禍의 원인으로도 이해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가 被禍하기전에 관직에서 물러났든지, 또는 그의 학문이 충족할만한 연령이나 境地에 이르렀더라면 이처럼 急進의인 施政을 斷行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반대파와의 마찰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이므로 禍는 모면하게 되었으리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趙光祖를 비롯한 新進士類들은 학문의 未熟으로 말미암아 現實의 改革에 실패하여 堯舜三代의 至治나 王道政治의 達成은 커녕 스스로의 일생을 士禍로 끝마쳤다는 論理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李 滉의 생각에는 약간의 問題點이 內包되어 있다. 趙光祖를 主軸으로 하는 新進士類들이 여러면에서 너무 급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당시의 現實과 마찰을 일으켜 실패를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패 원인은 急進性和 당시의 時代相 등 두 가지 要因에서 구해져야 하며, 急進性 또한 그들 자신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들이 당시에 처하고 있던 立場에다 구해야 할 것이지, 결코 학문의 成熟여부에다 구할 일이 못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戊午·甲子 兩士禍를 겪고 난 후 士類는 너무나 萎縮되어 있었던 데 반하여, 既成勢力들은 威勢를 떨치고 있었다. 그러던중 반정을 통해 即位한 中宗은 燕山君代의 濁政을 刷新할 意慾으로 趙光祖를 비롯한 新進士類를 重用하게 되었고, 그들 또한 知己의 君主를 맞아 平素의 經綸을 펼 好機를 얻었던 셈이다. 그런데 그들이 理想으로 삼고 있던 「至治」의 실현에는 현실의 여러가지 제도나 既成 官僚勢力이 阻害要素로 看做되었으므로 急進의인 改革과 舊勢力의 陶汰作業 등을 통하여 既成秩序에 挑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賢良科의 설치도 따지고 보면 舊勢力의 陶汰에 對應하는 自派의 新勢力 扶植을 위한 政策이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⁵⁹⁾

58) 同上錄

1 辛而登擢太驟 再不幸而求退莫遂 三不幸而謫日斯終

39) 拙稿, 賢良科 研究 (啓明史學 第一輯) 參照

이와 같은 당시의 실정을 배제하고 新進士類가 現實의 改革에 실패한 원인을 달리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또 가령 학문의 成熟 여부가 改革과 그것을 통한 寄與의 成敗를 결정하는 關鍵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실침투나 개혁은 학문이 완성의 경지에 이른 聖賢만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학문의 완성을 위하여 巖穴이나 山林에 묻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 참여하여 行政을 遂行하고 時弊를 바로잡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구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李滉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자기 나름의 철저한 指導者觀이요 現實觀이기는 하여도 그것은 매우 고전적이고 現實忌避의 要素를 內包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李滉의 경우, 학문이 成熟해가고 있던 中年 이후에 있어서 그의 현실참여는 적극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現實忌避度가 커지고 있었음을 볼 때, 그의 주장과 실제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趙光祖도 당초부터 관직에 별 뜻이 없었던 점에서는 李滉과 다를 것이 없었다. 어쩌면 당초에는 李滉보다 현실에 대해 더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李滉은 自意든 他意든간에 式年文科에 及第하여 官僚가 될 수 있는 條件을 갖추어 待機하고 있었지만, 趙光祖는 34歲까지 文科에 赴擧한 일이 없이 지내다가 그 해에 천거에 의해 官職에 오른 뒤 비로소 謁聖文科에 應擧, 及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官界에 진출한 두 사람이 現實에 對應하는 態度는 전혀 對照的이었다. 趙光祖는 천거로 造紙署 司紙에 叙任된 이래 賜死될 때까지 4년간 현실에 철저히 파고들어 時弊의 釐正과 制度의 改革을 과감히 遂行해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惹起되는 마찰이나 反撓을 그는 조금도 回避함이 없이 극복해 나갔다. 심지어 그는 장차 닥쳐 올지도 모를 士禍를 予見하였으면서도 그것을 굳이 피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다. 이에 반하여 李滉은 그의 관직생활의 초년에는 비교적 충실하게 관직에 在任했던 것 같으나, 중년이후에 오면 辭職, 歸鄉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의 官職經歷은 散漫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관직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직에 머무르기는 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 현실로부터 멀어질 기회를 늘 찾고 있었던 李滉의 현실 참여태도는 趙光祖에 비하면 다소 消極的이고 被動的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그의 현실참여태도를 볼 때, 그가 현실의 時弊釐正이나 더 本質的인 의미의 改革에 寄與한 바가 컸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의 文集에는 甲辰乞勿 絕倭使疏・戊午辭職疏・戊辰辭職疏一・同二・戊辰六條疏 등 다섯 가지의 上疏文과⁴⁰ 戊辰 經筵啓劄一・同二・進聖學十圖劄・辭免大提學劄子・乞解職歸田劄子・乞退劄子・乞致仕辭

40) 退溪先生文集 卷6, 上疏

田割子一・同二・同三 등 아홉 가지의 割子가⁴¹⁾ 收錄되어 있다. 그리고, 朝鮮王朝實錄에서도 그의 經筵陳啓의 內容을 소개한 것이 散見된다. 그런데 文集에 收錄된 疏・割거나 實錄에 散見되는 陳啓거나 晩年의 것이 대부분이고, 내용면에서는 辭職에 관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현실의 時政에 관하여 의견을 具申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明宗初 對倭外交關係에 言及하여 倭使를 막지 말 것과 對倭外交는 強柔의 兩面에서 遂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²⁾ 또 그는 經筵朝講에서 外方의 市場과 市民의 生計에 관하여 陳啓한 일이 있었다.⁴³⁾ 그러나, 그가 時政의 立案에 가장 크게 寄與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은 庶孽許通에 관한 意見 具申에서였다. 明宗朝에 와서 庶孽許通에 관한 문제가 廟堂에 기 논의되었을 때, 대부분의 大臣들은 許通의 不當함을 고집하였으나 그는

하늘이 한갓 세상을 만들었을 때, 人材는 貴賤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先王들이 人材를 登用한 법은 다만 그 재주와 德行의 優劣을 보았을 뿐, 그가 태어난 根本의 如何를 論하지는 않았었다. 예로부터 名人・碩土로서 庶孽의 賤한 身分에서 나와 奮世하여 간혹 功業을 세워 國家를 裨補한 이가 한 둘이 아니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이 庶孽의 仕路에 進出함을 不許하고 있다.⁴⁴⁾

라고 하여, 庶孽許通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던 바, 같은 해인 明宗 8年(1553) 庶孽 가운데서 良妾子에 한하여 科擧 및 仕路에의 許通이 가능해졌고,⁴⁵⁾ 선 明宗 9年(1554)에는 庶孽許通節目을 마련기로 하였다.⁴⁶⁾ 이 문제는 뒷날까지 두고 두고 論難의 대상이 된, 당시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의 하나였다.

그리고 宣祖 即位初에 그는 趙光祖가 中宗때 발탁되면서부터 被禍하기까지의 顛末을 詳說하고는 그가 참소에 의해 희생되었을 뿐, 결코 죄가 없었음을 中宗 자신이나 뒤를 이은

41) 同 書 卷 7, 割

42) 明宗實錄 卷 1, 即位年 7月 丁亥條

本條에 收錄된 그의 上疏文은 그의 文集에 收錄된 前揭의 甲辰乞勿絶倭使疏의 內容과 一致한다. 그런데 甲辰은 中宗 39年(1544) 이고, 明宗 即位年은 乙巳年(1545)으로 一年의 차이가 있는데 그 正誤의 여부는 追考를 요한다.

43) 同 書 卷 6, 2年 9月 乙亥條

44) 同 書 卷 15, 8年 10月 庚辰條

上護軍李滉議 天生一世 人材無問於貴賤 故先王用人之法 但視其才德之優劣 而不論其所出之如何 自古名人碩土 由庶賤而奮世 或至於立功業裨國家者 不可一二數 惟我東方 庶孽之人 不許通仕路

45) 同 上 丙申條

傳曰……然庶孽許通 太祖・太宗朝事也 雖許通 勿叙顯職 則豈無等分乎

46) 同 書 卷 16, 9年 1月 乙巳條

禮曹判書鄭士龍啓曰 臣年既衰耗 不合長官 且近日爲庶孽許通節目 臣於嫡無子 只有孽產 磨鍊節目 未安 請遞 傳曰 勿辭 庶孽許通節目 則使他堂上爲之

仁宗 등이 익히 알고 있었다고 陳啓하여, 그를 伸冤한 일이 있었는데⁴⁷⁾ 그 결과 趙光祖는 宣祖 1年(1568) 4月 領議政을 追贈받게 되었다.⁴⁸⁾

또 그는 病辭하고 마지막 歸鄉을 하는 자리에서 宣祖에게, 오늘날 비록 治平한 것 같으나, 南北에 빈틈이 있고 民生이 困悴하니 患亂에 대한 防備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進言하였다. 이어서 그는 예로부터 君主의 초기의 政治는 대개 清明하지만 뒤에 가면 諫官의 諫靜에 영증을 느끼게 되고 또 간사한 무리들이 그 틈을 타서 君主의 뜻에 迎合하게 되면, 올바른 사람은 着手할 곳이 없어져 奸黨들의 세상이 되는 법인 바, 지금은 新政의 초기라서 뜻을 굽혀 諫靜에 따르지만 오랜 뒤 君主의 뜻이 바뀌게 되면 그때도 오늘 같으리라고 保障할 수는 없을 것이라 하여 경계의 뜻을 밝힌 일이 있었다.⁴⁹⁾

요컨대 위에 든 몇 가지의 上疏나 陳啓의 내용을 통하여 그는 外交·市場·人事·言路 등 時政의 해결에 직접 소개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드문 事例에 속하였고, 국왕에 대한 그의 上疏·陳啓·劄의 상당수는 자기자신을 현실에서 배어놓으려는 것이 목적이었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의 행정에 대한 그의 寄與가 컸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史臣이

李 滉이 이전에도 부르심을 받고 赴朝하였으나, 한 차례 啓覆하여 例에 따라 入侍한 뒤로는 召對·啓納의 利益이 없었다. 밖으로 그 이름을 敬慕하였는데 內實이 정성스럽지 못하였다면 李 滉이 이제 온다 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⁵⁰⁾

라고 말한 것은 위의 사실을 매우 적절하게 代辯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四. 結 語

麗末의 鄉吏에서 출발하여 鮮初에 와서 가깝스로 兩班의 班列에 끼였던 스스로의 家門을 혁혁한 門地로 昇格, 定着시킨 退溪 李 滉은 일생의 學究生活를 통하여 性理學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움으로써⁵¹⁾ 당시의 학자나 儒生에게 至大한 영향을 끼쳤

47) 宣祖實錄 卷1, 即位年 11月 乙卯條

48) 同 書 卷2, 1年 4月 丙申條 및 靜庵先生文集 附錄 卷5, 年譜

49) 宣祖修正實錄 卷3, 2年 3月 乙巳條

上曰 卿今歸矣 乃有所欲言者乎 滉對曰……今世雖似治平 南北有患 生民困悴 不可謂無可憂之防也 上復問所欲言 對曰…自古人君 初政清明 正人見用 君有過則諫 有失則爭 人主必生厭苦之意 於是奸人 乘隙而逢迎之 人主之心 以爲若用此人 則吾所欲無不如意 自此與小人合 而正人無着手處 然後 奸臣得志 無所不至矣 今新政之初 凡所諫靜 皆屈意從之 無大過矣 久而聖心或移 安能保其如今日乎

50) 明宗實錄 卷32, 21年 4月 辛未條

史臣曰……滉前此 亦承召赴朝 然一度啓覆 隨例入侍之後 別無召對啓納之益 外慕其名 內實不誠 則滉今雖來 抑有何助

51) 宣祖實錄 卷7, 6年 11月 壬寅의 府啓

다.⁵² 그리고 관리로서의 청렴하고 조심스러운 그의 생활은 그를 勤謹之人으로 또는 清白吏로⁵³ 만듦으로써 여러 사람의 崇仰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는 당시의 국왕이나 臣僚들로부터 이깁을 받았고, 따라서 그들은 그를 늘 국왕의 側近에 두어 두고 顧問의 任務를 맡기고자 신절히 원하였던 것이다.⁵⁴ 그러나, 그는 국왕이나 臣僚들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늘 辭職, 歸鄉할 것을 희망하였고, 따라서 그의 관직생활은 空白期가 많은 散漫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늘 현실에서 멀리 떠나 鄉曲에 숨고자 노력한 것은 中宗期의 己卯土禍와 특히 그의 부모 被禍한 乙巳土禍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과 土禍後의 土習의 퇴폐 및 世道の 濁亂에 말미암은 점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土禍를 겪고 난 뒤 士林에는 現實의 政界를 떠나서 鄉曲에 숨어 살려고 하는 現實忌避의·隱遁의인 風潮가 생겨나서 李滉처럼 出仕에 慎重을 기하거나 出仕를 완전히 체념하는 인물도 드물지 않은 실상이었다.⁵⁵

그러나, 그에 앞서 보다 本質의인 要因을 찾는다면, 그것은 곧 그의 性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의 性品에는 다소 消極的, 被動的인 일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를 스스로의 학문의 성취와 人格의 修養에 만족하는 學者型 人間으로 成長시키는데는 매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時弊의 釐正이나 時政의 改革에 貢獻할만한 卓越한 能力과 강렬한 參與意識을 갖춘 바람직한 官僚型 人間으로 그를 成長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는 학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性理學을 확고한 기반위에 定着시키고 또 次元을 높이는 데 貢獻함으로써 後代에까지 追仰을 받게 되었던 것이나, 그가 成就한 학문을 현실에 導入하여 政治의 經綸으로 適用하는 데까지는 끝까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爾領議政李滉 篤信好學 理明義精而爲德行 發而爲事業 其扶植斯文維持吾道之功 實東方所未有也

同 書 卷20, 19年 2月, I 曹正郎 趙 樞의 陳疏

臣師臣李滉 ……故其發於詩文論辨者 皆所以淑人心而扶世道 承前聖而啓後蒙也

52) 同 書 卷196, 39年 2月 辛亥의 領經筵事 沈喜壽의 陳啓

李滉 ……承召而來 館學諸生 雖不得相與講論 而矧然有所矜式 仰之如山斗 信之如神明 故士習不變 人皆激昂

53) 清選考 卷7, 清白條

54) 明宗實錄 卷7, 3年 1月 庚寅의 司憲府 上啓

同 書 卷17, 9年 8月 辛未의 領經筵事 尹 滉의 陳啓

同 書 卷20, 11年 3月 庚辰의 史臣의 記錄

55) 宣祖修正實錄 卷20, 19年 10月 趙 憲의 上疏

당시 그러한 인물로는 李滉 외에도 成宇琛·成 渾·林億齡·徐敬德·金麟厚·曹 植·李 栢 등이 있었다

자기가 터득한 학문의 지식을 현실에 導入하여 온갖 時代的, 人的 惡條件을 무릅쓰고 「至治」의 實現을 꾀하다가 마침내는 스스로의 被禍를 自招하였던 趙光祖의 경우와는 매우 對照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趙光祖가 적극적, 能動的, 現實參與的인 特徵이 강한 官僚型 人間이었다고 한다면, 李滉은 純粹·謙虛·恬靜·明白한 性格의 學者型 人間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史臣이:

李滉의 才調나 器局은 비록 趙光祖에 미치지 못하지만, 義理(性理學的 學理)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精微함을 다한 것에 이르면 趙光祖의 미칠 바가 못된다.⁵⁶⁾

라고 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人物評으로는 的確한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李滉의 性品·生活態度라든가, 官職觀·現實參與態度·業績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는 卓越한 行政能力과 적극적인 參與意識을 지닌 훌륭한 官僚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誠實性과 沈潛性을 지니고 학문에 執着하여 性理學的 발전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고, 또 後代에까지 큰 影響력을 지닌 훌륭한 學者였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6) 同 書 卷 4, 3 年 12 月 甲午條

滉才調器局 雖不及光祖 至深究義理 以盡精微 則非光祖之所及矣